



탱글탱글 포도...천진난만 동심

9일 광주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 인근 포도재배 하우스에서 열린 포도따기 체험에 참가한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포도를 바라보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구의원도 구청 공무원 인가요”

광주 서·북구, 구의원 자녀 공공어린이집 입학 허용 논란 규정까지 고쳐가며 특혜...타 지자체도 “비상식적인 일”

광주시 일부 구청이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서 구의원을 ‘직원’으로 규정해 사실상 그 자녀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구의원의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무늬만 공무원’인 이들의 자녀를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에 입학하도록 허용한 것은 특혜 아니냐는 것이다.

9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9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서구청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이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

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법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구는 지난해 10월 21일 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을 위한 내부규정(광주시 서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하면서 구의원을 ‘직원’으로 정의, 보육대상에 그 자녀를 포함시켰다.

실제 내부규정 제2조(정의)에서 ‘소속 직원’은 광주시 서구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및 서구의원으로서, 보육대상(제10조)은 소속 직원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서구는 “구의회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 신분에 해당돼 소속 직원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구는 지난해 8월 8일 서구와 유사한 내용의 내부규정을 만들었다. 북구는 지난 3월 2일 북구청어린이집을 개원(현원 23명), 운영 중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 광역·기초단체의 경우 지방의원을 아예 빼거나 출연기관 및 용역 인력 자녀를 포함하는 등 일반인 자녀의 어린이집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광주시·남구·순천시 등은 내부규정 제정 당시 지방의원의 경우 사실상 소속 직원(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검토대상에서조차 아예 제외했다.

전남지역 직장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직원은 공무원을 말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소속 지방의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반 사립 어린이집보다 시설 등 여건이 좋은 공공기관 어린이집의 문턱을 지방의원에게만 낮추는 것은 이른바 ‘비위 맞추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를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본분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비상식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부하는 것과 다를없다”고 꼬집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규정은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구의원들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의원 자녀 포함 여부는 담당 직원이 예외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할 것 같다”면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다소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제가 ‘택시운전자’ 아들입니다”

SNS서 김사복씨 큰아들 주장...“아버지 1984년 사망”

SNS에서 자신이 영화 ‘택시운전자’에 등장하는 김사복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일 트위터에는 계정 franio1013의 김승필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김사복씨 큰아들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김사복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승필씨는 “지난 4일 이 영화를 보고 늘 제 안에 계셨던 영웅이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을 잊지 않고 찾고자 하니

위르겐 힌츠페터 씨에게 깊이 감사함을 드립니다”고 썼다. 김씨는 이어 “그 당시 들려주신 이야기와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면서 “아버님은 1984년 12월19일 투병 후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회고했다.

김사복씨는 1980년 5월 광주 민중화 운동 당시 위르겐 힌츠페터의 취재를 도운 인물로 힌츠페터는 김씨를 수소분하며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지난해 영면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장기수 서옥렬씨 복송’ 시민 서명

추진위 15일부터 청원서 접수...정부에 촉구 서한도

장기수 서옥렬(90)씨(광주일보 2017년 7월21일자 6면)의 복송 추진이 본격화된다.

“장기 구급 양심수 서옥렬 선생 송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5일부터 광주 지역 주요 기관장·국회의원·구청장 16명과 시민·사회·여성·종교·노동계 대표자 75명 등 총 91명을 상대로 송환 청원서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추진위는 오는 21일 광주 무진교회 또

는 북동성당에서 ‘서옥렬 선생 송환 추진 법집행 행사’를 열고 서씨의 복송 송환을 바라는 시민 서명을 받는다.

은·오프라인 송환 청원운동을 벌인 뒤 청와대·통일부에 송환 촉구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추진위는 전국의 비전향 장기수 19명(서씨 포함 2차 송환희망자)이 송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공식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8 몰림 21:02
해질 19:27 달림 07:56

폭염 속 반가운 소나기

소나기가 내리는 일부지역에서는 전동·번개가 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25/32	보성	구름맑음	23/30	
목포	구름맑음	25/31	순천	구름맑음	25/32
여수	구름맑음	25/30	영광	구름맑음	24/32
나주	구름맑음	4/32	진도	구름맑음	25/32
완도	구름맑음	25/32	전주	구름맑음	24/31
구례	구름맑음	24/31	군산	구름맑음	23/31
강진	구름맑음	24/32	남원	구름맑음	24/31
해남	구름맑음	24/32	홍산도	구름맑음	24/30
장성	구름맑음	23/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2.0	북~북동 0.5~2.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0~2.0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2.5	북~북동 1.0~2.5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높음	자외선
높음	피부질환

◇주간 날씨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	☀	☀	☁	☁	☀	☀
24/33	24/33	25/32	25/30	25/31	25/32	24/33

광주·전남 주말까지 다시 폭염

지난 9일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비로 다소 추워지던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10일 동해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대체로 많고 지역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3도~25도, 낮 최고기온은 30~32도 분포를 보일겠다. 이는 전남보다 2~3도기량 높은 기온

이다. 이번 무더위는 주말인 1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전동·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찜통더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나기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면서 강한 일사가 내리겠다 때문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로 한풀 꺾였던 무더위가 10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신안·여수 양식장 어류 폐사 속출

돌돔 7만여 마리 등 피해액 1억원 넘어...당국 원인 조사

신안과 여수의 양식장에서 어류 7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피해 규모는 1억여원에 달한다. 수산 당국은 폭염에 따른 바다 고수온이 폐사의 원인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신안군 압해읍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13cm 크기의 돌돔 7만여마리(9800만원 추산)가 집단 폐사했다.

이 양식장 주인은 최근 폐사해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는 돌돔까지 합하면 20만 마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폐사 원인이 고수온 때문인지, 바이러스 감염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해수산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 일대 바다는 최근 폭염 등으로 수온이 예년보다 높다. 하지만 고수온에 강한 돌돔이 집단 폐사한 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폐사일 수도 있다고 전남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수시 남면 연도에서도 50cm 크기의 낫치 성어 1800마리(3000만원)가 폐사했다. 여수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시료 분석을 맡길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